

校舍新築으로 화기 넘친

적십자간호학교

서대문로타리에 적십자병원과 함께 자리잡고 있는 적십자간호학교는 지난 4월27일 준공된 새 집에 이사하여 학교분위기는 교수와 학생간에 더욱 화기가 넘쳐 있었다.

작년 9월 착공, 7개월만에 완공된 이 신숙교사는 현대식 콘크리트건물로 지상 4층 지하 1층이며 넓고 비좁던 옛학교건물과는 달리 이곳 학생들의 배유의 터전으로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교육사업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교의 이번 신축공사비는 8천3백만원이 들었는데 그중 대한적십자사에서 7천만원, 간호학교가 1천2백만원, 동창회성금 1백만원이 각각 투입되었다.

연건평이 751평(건평164평)인 이 건물은 지하 1층과 1층 일부를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중환자 입원실로 사용되는 외에 2, 3, 4층은 모두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74년 5월말 현재 240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으며 널찍한 강당을 비롯, 교실 10개와 교수실, 관리실 등을 구비했고, 실습실에는 최신실습용구가 완전히 갖추어져 학습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1945년 10월 15일, 적십자고등간호학교로 출범

한(학생정원 3학급 124명) 본교의 애초설립 목적은,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실무를 통해 심신을 연마하고 나아가서는 덕성을 길러 평시와 전시에 간호업무를 통하여 투철한 적십자이념을 구현하고 지도적인물을 육성하는데 있다」고 한다.

본교 초대교장인 손금성씨, 1962년 1월의 적십자간호학교로 승격되기까지 민족의 비극인 6·25동란때 재학생 139명을 모두 군 간호 봉사대에 내보냄으로써 적십자이념을 구현하는데 앞장섰고, 1951년 피난시에도 제주도 서귀포에서 간호교육을 계속했다. 1955년 5월엔 “택아더기년관(기숙사)”을 증축했으며 그후 육군간호위탁생 50명을 2기에 걸쳐 교육, 1960년 5월에도 32명의 육군간호위탁생을 교육시키는 열적을 남겼다.

한편 1958년 4월에는 응시자격을 고등학교졸업자 이상으로 끌어 올려 자질향상이 되었고, 1959년 3월에는 서울적십자병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갔다. 그리고 1966년과 1969년 두차례에 걸쳐, 교실4개를 증축함으로써 구교사는 모두 291명이었다.

1971년에는 학칙개정인가를 얻어 학생정원은 6학급에 240명을 확보.



〈4월 27일 준공된 적십자간호학교 신축교사 전경〉

그동안 본교졸업생 수는 2월현재 모두 732명인데 그 현황을 살펴보면 이중 간호학 교수가 5명, 미국, 캐나다, 서독, 그외지역인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졸업생이 298명, 그밖에 의사 및 선생등 간호업무외의 직종이 31명, 그리고 218명이 가정에 들어앉았다.

또한 74년 현재 종합병원 근무가 120명, 보건소에 12, 양호교사 15, 간호장교가 13명이다.

한편 본교의 입학지방자수는 5년간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12대 1의 엄청난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0년도의 경우 40명 모집에 407명이 모여들었고 금년년도 80명 모집에 974명이나 응시를 했다고 한다.

본교의 특전으로는 수업기간 3년중 3학년 1학기부터 기숙사에 입사하게 되며 최고득점자에게는 입학금을 면제하고 또 재학중 학업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주는 한편 학생전원의 건강 관리에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교수진을 살펴보면 본회상인이사로 제신 홍영숙교장을 비롯 박태숙씨(기초간호학), 이정숙씨(소아과간호학), 김경숙씨(보건간호학), 방수복씨(내과간호학), 이영자씨(산과간호학), 이외에도 3명의 의사가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등 41명의 직원이 있다.

그리고 교과과정은 교양과목으로 국민윤리를 비롯해 국어, 영어, 문화사, 철학, 적십자원칙, 체육등이 있고 전공과목으로 생물, 화학 해부, 생리, 미생물등 간호원으로써 필히 이수해야 할 과목들을 전부 가르치고 있다.

학생실습은 서울적십자병원과 국립정신병원을 이용한다. <林>